

아시아투데이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028면 수도권/전국

파주 캠프그리브스 한류 명소로 인기

이달만 말레이 관광객 1140명 방문
‘태양의 후에’ 촬영지로 체험 다양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가 동남아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4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단체여행객 1140명이 이달 들어 8차례에 걸쳐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했다.

캠프그리브스는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민간인 통제구역 최초의 유스호스텔로, DMZ로부터 불과 2km 떨어진 위치에 있어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에’ 촬영지로 유명하다.

이번 단체여행객은 말레이시아 마케팅 전문기업 ‘사하지다 하이오’ 직원들로, 캠프그리브스에서 15~24일 인센티브 여행을 진행했다. 이들은 군번줄 만들기, 군복입기, 크로마키 촬영 등 3가지 ‘태양의 후에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인센티브 여행은 기업체 등에서 근무 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 수단으로 실시하는 관광으로, 최근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많



말레이시아 여행객이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해 체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제공=경기관광공사

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진행되는 ‘태양의 후에 프로그램’은 드라마 방영 이후 지속적인 예약문의가 이어지는 등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해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등 외국인 관광객 8000여명이 프로그램을 즐겼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은 태양의 후에 프로그램 등 DMZ에서 특별한 한류 콘텐츠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남아 인센티브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DMZ 자원과 한류문화를 동시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주홍 기자

새해부터 파주 캠프그리브스 들썩 말레이시아 여행객들 ‘헬로~ 한류’

15일~24일 인센티브 여행단을 8회 걸쳐 총 1140명 다녀가 ‘태양의 후예 프로그램’ 체험

말레이시아 단체여행객 1천140명이 이달에만 8회에 걸쳐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했다.

24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단체여행객은 말레이시아 마케팅 전문기업 ‘사하지다 하이오’ 소속으로 캠프 그리브스에서 15일부터 24일까지 인센티브 여행을 진행했다.

인센티브 여행은 기업 등에서 근무 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 수단으로 실시하는 관광을 통칭한다.

캠프 그리브스는 공사가 운영하는 민간인 통제구역 최초의 유스호스텔

로, DMZ로부터 2km 떨어져 있어 분단의 현실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유명하다.

말레이시아 여행객들은 이번 여행 기간 군번줄 만들기, 군복입기, 크로마키 촬영 3가지의 ‘태양의 후예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하는 ‘태양의 후예 프로그램’은 드라마 방영 이후 지속적인 예약 문의를 받는 등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관광객 8천여 명이 이용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남아 인센티브 방한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해 DMZ 자원과 한류문화를 동시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인천일보



말레이시아 관광객, 캠프그리브스 방문

말레이시아 마케팅 전문기업 ‘사하지다 하이오(SAHAJIDAH HAI-O)’ 소속 단체 여행객들이 24일 민간인 통제구역 최초의 유스호스텔이자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유명한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단체 여행객들은 ‘사하지다 하이오’에서 근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이 포상으로 받은 인센티브 여행으로,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관광객 8000여명이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사진제공=경기관광공사